MC: 인천의정중계탑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인천광역시의회 제7대 의회가 첫 본회의를 갖고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본회의에서 의장단이 선출이 되고 또 각 상임위와 특위, 위원장들도 선출이 되면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월미은하레일 재개통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군요. 관련된 말씀을 들어 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의회 야당 몫의 부의장으로 선출된 이용범 부의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양구 제3선거구가 지역구입니다. 부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MC: 부의장에 선출 되신거 축하드립니다.

의원: 네, 감사합니다.

MC: 어떤 포부를 갖고 임하실건지 한 말씀해주시죠.

의원: 네. 제가 2010년도 시의원 당선된 이후에 이번 64지방선거에 우리 계양구 계산1, 2, 3동 주민들이 많은 사랑을 주셔가지고 이번엔 재선에 당선됐습니다. 이번에 재선이 돼서요, 좀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과 주민들이 더 열심히 하라고 기회를 한번 주신거 같습니다. 지난 제가 2010년도에도 당선 돼서요, 4년 동안 지하철로 만 출퇴근했습니다. 요번에도 지하철로 출퇴근하면서 지난 6대 때도 제가 시의원 중에서도 한 번도 의회에 결석하지 않고 100% 출석 한 시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MC: 네, 6대 때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열심히 활동하셨는데, 재선으로 부의장 되는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요.

의원: 아마 나이도 많고 그래서 재선을 시켜준거 같습니다.

MC: 지금 선거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의회 판세가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쪽에서는 좀 서운한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 선거결과 나왔는데, 이번 선거결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의원: 네, 저희들도 여론조사라든가 민심이 갑자기 이렇게 달라질지는 몰랐습니다. 선거 이틀 앞두고도 여론조사 시장님 했을 때도 이기는 것으로 나왔었는데 마지막에 6월 4일에 투표를 하고 개표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달라졌고, 많은 의원님들이 그 당시 민주당 시의원님들이 22명 이었는데 요번에 6명만 재선했습니다. 저희들도 정말로 민심이 하루하루 달라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 들고 있습니다.

MC: 그렇죠. 새누리당이 3분의 2로 다수당이 됐어요.

의원: 네, 맞습니다.

MC: 다수당과 어떻게 의회 정치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지 궁금해지는데 어떤 구상이 있으신지요.

의원: 저희는 다수당인 새누리당 하고도 의장 선거, 제1부 의장 선거 상임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역대 의장 선거도 35명이 저희가 시의원인데요. 35명 다 투표를 의장님한테 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협조를 잘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MC: 알겠습니다. 7대 의회가 시작 된지 꼭 일주일에 됐는데 지금 보니까 갈등이 있는 거 같아요. 어제 시의회 의장 실로 항의 방문 하셨다고요.

의원: 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 12명이 어제 9시 반에 의장님께 항의방문을 갔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 시의원이 당선되고 의회가 구성돼서 첫 번째 현장 방문을 월미은하레일 현장방문을 가기로 했습니다.

MC: 같이 다 합의가 되어 있던 거죠.

의원: 저희 의원들은 전혀 초선 재선 아무도 모르고 현장방문이라는 측면에서 다들 들뜬 기분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MC: 어떤 문제였습니까.

의원: 점심 식사를 갔었는데 식사 장소에 전임 안상수 시장님께서 참석을 했던 부분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MC: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볼게요. 시의회 의원들께서 월미은하레일을 현장 방문하기로 했는데 그 자리에 안상수 전 시장에 와 있더라. 그것이 지금 문제다 말씀인가요.

의원: 안상수 시장님이 우리가 현장방문에 있어서 다른 개인적인 참석 한다고 했으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참석을 안 했을 겁니다. 현장 그 자체를 그런데 인제 안상수 시장님은 왜 저희가 참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고 우리 시의원들이 현장방문에 가기로 했는데 그 식사장소에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말을 했던 부분이 문제가 된겁니다. 그 요인중의 하나가 월미은하레일은 870억 정도의 시민의 혈세로 건설된거 아닙니까. 그것을 다시 6대 때 활용하기 위해서 특별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전문가 의견들도 듣고 일본이라든가 미국의 전문업체의 의견도 저희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듣는 과정에서 저희가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안상수 전 시장님도 그러면 6대 특별위원회에 월미은하레일 특별위원회에 참석을 해 달라. 이야기를 해 달라고 제가 출석 요구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출석을 안 하셨습니다. 안 하셨던 분이 갑자기 월미은하레일에 우리 시의원들이 참석을 위해서 식당에 점심을 먹고 현장방문하기 위해서 갔는데, 아무도 새누리당 의원들도 모르고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자리에 참석해서 그 부분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의장님께 어제 항의를 했습니다.

MC: 의장님은 뭐라고 답변하던가요.

의원: 의장님은 자기는 개인적으로 점심 한번 먹자 그래서 그날 시의원들이 식당으로 오니까 참석을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MC: 그럼 초대한 사람은 의장님이 되는 건가요.

의원: 네, 새누리당 시의원 원내대표도 몰랐습니다.

MC: 그렇군요.

의원: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장방문까지 점심 먹고 같이 갔고, 현장방문을 해서 탑승까지 하고 중구청장이 또 탑승을 해서

MC: 안상수 전 시장이 함께 현장방문도 했고 탑승까지 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의원: 네, 그다음에 중구청장님도 오셔가지고 우리 시의원들이 현장 탑승을 해야되고 현장방문이 되어있는데 중구청장도 그날 참석을 연락도 못 받았는데 갑자기 참석을 하셔 가지고 우리 시의원들이 관련된 질의응답을 하기로 했는데 중구청장이 그날 참석하셔가지고 우리 시의원들이 질의할 수 있는 중구청장이 다 뺏어 갖고 자기가 질의하고 공무원들 야단치고 이런 부분은 매우 부적절 하다. 그런 내용으로 제가 어제 항의 방문했습니다.

MC: 일단 중구청장이야 뭐 관내에 최대 관심사니까 당연히 방문 할 수도 있겠다. 라고 판단이 됩시다만 그래도 사전에 협의를 하고서 했었어야 하는데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MC: 현장방문 해 보신 결과 어떻습니까.

의원: 현장방문은 제가 6대 때도 시승을 몇 번하고 몇 번 갔었습니다. 몇 번 갔었는데 현 상태로는 그걸 다시 운영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MC: 새누리당 소속의 시의원들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의원: 네, 그 당시 6대 때는 마찬가지였습니다.

MC: 지금은요.

의원: 지금은 시승하고 전반적인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아직은 파악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MC: 알겠습니다. 월미은하레일에 대한 시의회 공식적인 입장을 언제쯤 내놓으니까.

의원: 저희가 직접적인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만 그것 관련해서 특위를 구성한다. 그 이야기를 좀 들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MC: 그것도 협의는 아직 안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이네요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들 하고는 협의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MC: 시민들이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하거든요 하루 이틀 된 얘기도 아니고 몇 년 내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하면 뭐로 쓰느냐 그거 가지고 얘기가 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결론이 안나 있는 상황이 다 보니까 상당히 답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의원: 네, 송시장님도 시승을 해 보셨고 기자분들도 시승을 하셨는데요. 그 날 6대 때 기자분들도 함께 시승을 하셨는데 의회 돌아 오셔가지고 두 번 다시 자기들고 타고 싶지 않다. 중간에 시승을 할 때 시승을 했는데 스톱해 가지고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한 10분 동안 낭패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MC: 그것은 6대 때 얘기죠.

의원: 네, 6대 때 이야기였습니다.

MC: 이번에는 그런 일 없었습니까.

의원: 요번에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MC: 그럼 개선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의원: 조금은 개선이 되어 있다고 볼 수 는 있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만약이 이대로 개통을 한다면 운영비라든가 사고가 났을 때 한사람이라도 우리시민들이라든가 외부 인천시민이 아닌 외부에서 오신 주민들이 오셔서 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럼 누구 책임이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MC: 안전이 제일 중요한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민들이 답답해 하고 있으니 어떻게든 빨리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의원: 네, 감사합니다.

MC: 인천의정중계탑이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부의장에 선임된 이용범 부 의장과 말씀 나눴습니다.